

P31. 농촌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Factors Affecting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people in the Rural area

최정숙*, 권성옥, 정인경¹⁾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¹⁾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Choe, Jeong-Sook* · Kwon, Sung-Ok · Jung, In-Kyung¹⁾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¹⁾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건강상태 및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부 농촌노인인구의 주관적 건강수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노인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건강증진대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002년 7월부터 2003년 9월에 걸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예천, 순창, 북제주, 남해 및 보성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자 노인 133명, 여자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평가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습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양극단의 대상자 분포가 낮아 ' 좋음(Good)', '보통(Moderate)', '나쁨(Poor)'의 세 그룹으로 재 분류하였다.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15.4%에 불과한 반면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는 대상자는 60%로 그 비율이 높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성, 교육수준, 직업유무 등이 주관적 건강평가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만성질환의 수에 따른 주관적 건강평가는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3가지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의 79.7%가 자신의 건강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신체적 기능상태도 노인의 주관적 건강평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는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이 있을 경우 건강평가가 부정적이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일상생활 동작능력(ADL)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 노인의 38.6%가 건강상태에 대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1개의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는 집단에서는 71.6%가 부정적으로 건강을 평가하였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독거노인의 59.4%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였으며, 친구 또는 이웃을 자주 만나거나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도 건강상태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비음주자가 건강을 좋게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과거에 술을 마시다 끊은 사람은 건강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고, 결식, 과식, 영양균형, 식품군별 섭취량 등 10문항으로 평가한 식습관에 있어서 식습관이 불량한 그룹이 자신의 건강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평가하는 건강상태는 성별, 교육수준, 가족형태, 질병, 기능상태 뿐 아니라 음주 등의 건강습관과 식습관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농촌노인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